

책도 제주 안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주지역에서의 실험적, 시험적 연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전체 기사를 가늠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의 보편적 기여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주도에서 조정 및 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뉴스기사 연구가 전국에서 이루어진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기사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연구는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기사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거나, 중재위의 결정에 대한 판단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음을 밝혀 둔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기사의 시시비비나 중재의 결정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 가능한 부분으로 극히 제한하였다.

2. 연구문제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된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1. 중심주제 유형은 어떠한가?

1-2. 보도행태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보도행태의 차이는 ‘리드(lead) 기사의 가치적 술어 사용여부’, ‘보도태도의 차이’, ‘의견 제시 유형의 차이’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1-3. 정보인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보인용은 정보원 출처 활용 수, 실·익명 처리, 정보인용 출처 명확 여부, 제목인용과

본문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2】청구항목별로 기사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1. 매체유형별로 청구항목과 피해유형은 어떠한가?

2-2. 연도별 청구항목은 어떠한가?

2-3.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신청인유형, 의견제시유형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된 제주지역 모든 매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재위에 접수된 제주지역 매체의 조정신청건수는 175건이었으나, 실제 기사 수는 129건이었다. 이는 하나의 기사에 병합청구가 이루어졌거나, 동일 매체의 동일 기사가 다른 신청인에 의하여 청구된 경우를 하나의 기사로 집계한 결과이다.

분석대상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의 협조를 받아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 조정신청사건기록에 첨부된 해당 기사를 근거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사는 일부가 '중략 및 후략' 되어 있어 해당 매체 전문(全文)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2) 측정항목

연구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측정항목은 ①매체유형 ②기사유형 ③신청인 유형 ④기사의 중심주제 ⑤정보이용 유형 ⑥기사의 보도행태 ⑦청구항목 및 피해유형 등 크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